

'김원중 달거리' 안방에서 즐긴다

오늘 올 첫 공연 온라인 생중계
남북분단 등 민족 아픈 현실 공연
우물안 개구리·루트머지 등 출연
김자이 작가 초대 빵 만드는 갤러리 준비



27일 열리는 올 첫 '김원중 달거리' 공연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지난해 열린 공연 모습.

남북분단 등 우리 민족의 아픈 현실을 예술가들의 다양한 메시지로 전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올해 첫 공연이 27일 오후 7시 30분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는 지역 예술가들과 젊은 음악인들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매일 마지막주 월요일(8월31일, 9월28일, 10월26일, 11월30일, 12월28일)마다 열리는 공연에는 가수 김원중을 비롯해 느티나무밴드, 블루스밴드 mind, body&soul,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주흥, 소프라노 유희민, 재즈아티스트 강윤숙, 월드뮤지그룹 루트머지, 포크&인디가수 듀오 꽃향 등이 관객과 만난다. 또 이진우, 바다프로젝트, 화가 한희원 등도 각자의 무대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113번째 공연인 이날 무대에는 가수 김원중과 박성연, 우물안개구리, 프로그래머, 화가 주흥이 출연해 빵 만드는 갤러리, 샌드애니메이션 등을 선보이며 남북의 현실을 반영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초대손님은 김자이 작가로, 빵 만드는 갤러리를 준비했다. 김 작가는 조선대 문화미디어과를 졸업했고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참여작가로 활동 중이며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휴식방법을 연구하는 미디어설치작가다.



김자이 작가

이날 무대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작품을 선보이며, 코로나 19로 지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김원중의 달거리)과 페이스북('김원중의 달거리' 검색), 홈페이지(www.kimwonjoong.com)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연출을 맡은 가수 김원중은 "12년간 112회의 공

연을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 걷고 있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없어서 온라인 생중계로 시작하고자 한다"며, "김원중 달거리의 다양한 공연콘텐츠를 안방에서 즐기며 올해도 평화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시작한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남북 분단 상황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족적 비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를 통해 지역의 공공예술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와 함께 공공예술의 가치를 전하며 평화의 씨앗을 키워왔다. 문의 010-3670-58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다희 시인 시집 '시 창작 스테디' 출간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출신인 이다희 시인이 시집 '시 창작 스테디'(문학동네)를 펴냈다. 201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돌출하게 신선하고, 침착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생각을 펼쳐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등단했던 시인의 첫 작품집이다. 등단 3년만에 발간한 시집에서 시인은 묵묵하고 차분한 시 세계를 펼쳐 보인다. 모두 50편이 담긴 작품집에는 진지하게 삶을 탐색하는 시들이 담겨 있다. "우리 열 명의 사람이 우리의 재능으로/ 누군가는 미래에 있었고 누군가는 아프기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질투심을 사용했다/ 하나의 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을 영영 이해하지 못하듯 곁었다"(「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중에서) 위의 시는 연작시 10편 가운데 하나로, 내 안의 다양한 화자들을 불러낸다. '열 명의 사람들'도 대변되는 이들은 각기 나만의 다른 시절을 나눠 가지고



있다. 내가 불러내는 특정한 시간들이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다. 시인이 신춘문예 당선소감에서 "사랑 안에서 무력한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힘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부디 그 힘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시인은 작품을 통해 내 안의 초상을 기록하고 타자와의 공감을 추구하는 것인지 모른다. 한편 해설을 쓴 신용목 시인은 "일상의 시간을 찢고 그 조각을 다시 일상의 자리에 내던짐으로써, 읽는 이를 읽는 이의 삶 속으로 돌려보낸다. 언어의 재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을 끝없는 재현 속에서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평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윤희면 교수 '조선시대 사마소...' 우수학술도서 선정

조선시대 생원진사를 교육연구기관인 사마소를 다룬 책이 학술원 '2020년 우수학술도서 한국학 부문'에 선정됐다. 전남대 윤희면 명예교수가 펴낸 '조선시대 사마소와 양반'이 그것. 책은 조선시대 생원진사들의 교육연구기관이자 향촌기구인 사마소와 그들의 명단을 담은 사마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2편으로 구성된 책은 사마소와 사마안을 양반사족들이 독점하고 있는 양상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사마안 독점과 신분제에 관한 내용도 수록돼 있다. 저자는 사마소와 사마안 사례연구로 양반사족



들만이 독점하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1920, 30년대 간행된 사마안에 예전에 배제됐던 생원진사를 그리고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사람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자기 선조가 생원 진사에 합격했다는 주장만으로 양반 후손으로 행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추억·기차·세탁...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

영광 출신 이기원 작가 수필집 '회전목마 인생' 펴내

영광 출신 이기원 수필가가 수필집 '회전목마 인생'(한숨)을 펴냈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는 부제가 말해주듯 수필집에는 회전목마에 비유되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추억', '기차', '세탁', '일곱', '세월', '잡초', '여행' 등 모두 60여 편의 글은 저자 특유의 감칠맛 나는 문장과 삶을 바라보는 진지함이 어울려 잔잔한 여운을 준다. 저자는 10살 때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 50여 년 이상 객지 생활을 했다. 고졸 후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20년 가까이 직업군인으로 살았다. 이후 불혹의 나이를 즈음해 전역을 했지만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탓에 사회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다. 저자는 "직업군인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



회전목마 인생

이고, 자유분방한 사회 생활은 '거친 들판의 잡초'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전역 후 3년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처자식을 버팀목 삼아 막노동으로부터 공단 생활에 이르기까지 1~2년짜리 직업을 10여개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인생철학은 이후 삶을 사는 데 귀한 지혜가 됐다. 실패는 성공이 잠시 변장한 모습이며 인생은 일어나지도 않을 이런저런 걱정만 하고 앉아 있기에 너무 짧은다는 것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세살살이'에는 직접 부딪치고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함축성 있게 풀어낸 이야기, 2부 '짧은 생각들'에는 저자 나름의 소신이 담긴 사유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이 수필가는 지금까지 '남자는 두 번 죽지 않는다', '아내의 고물 자전거', '바람 나그네' 등을 펴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순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작활동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공연예술단체의 신규 작품창작, 기존 우수작품의 재공연,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창작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남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사실 정도 및 기존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단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일정은 27일부터 8월10일까지다. 문의 061-981-668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의 9월 26일 전국 청소년 백일장 개최

한국작가회의는 제26회 전국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6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백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심을 거쳐 선발된 약 30여 명 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게 구성됐다. 참가비는 없으며 예심에는 '풍선껌', '주사위', '빅데이터' 등 기존 백일장에서 볼 수 없었던 글감으로 글씨를 뽐내게 된다. 예심 참가는 17

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대학생 제외)이면 가능하며 운문 2편, 산문 1편을 8월 14일까지 우편 접수(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 5층 한국작가회의)하면 된다. 본심 합격자는 8월 25일 발표한다. 시상내용은 장원 1명(상금 30만원), 차상(부문별 각 1명 상금 15만원), 등이다. 문의 02-313-1486.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p> <p>북구 북문대로 35(안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p>	<p>비비가</p> <p>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 각종해산물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초밥, 해산물 ☎ 062)229-1008, 010-8572-0999</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영일) 사주, 점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유)신 화 로 프</p> <p>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p>	<p>퀵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p> <p>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봉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콜릿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p>	<p>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p> <p>북구 안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미가한우명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단,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뮤엄영어동림캠퍼스</p> <p>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장 어 수 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대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p>	<p>우리식당</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p>만福당</p> <p>동구 계봉로 184번길 5-9(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